

정책보고서 2014-01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Enactment of New Biocides Regulation in Korea

박정규



서 언

수년 전 발생한 가슴기살균제 피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충분한 검사를 거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야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의 가슴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학물질이나 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해우려 요인은 바로 살생물제로 불리는 제품군입니다. 살생물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하며, 주로 비농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즉,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균제, 향균제 또는 소독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가슴기살균제도 대표적인 살생물제입니다. 살생물제는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과 다른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법은 EU의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이며, EU 내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모든 산업용 화학물질은 REACH로, 그 외 살생물제는 BPR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화학물질, 소비자용 제품과 살생물제 모두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할 계획이라, 앞으로 살생물제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살생물제의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EU BPR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에서 살생물제 관리 시 필요한 법적·기술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살생물제의 효율적